

영산강 시대를 열자



수달 헤엄치고 철새 노닐고… 그대로인 영산강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시작 전부터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사항이다. 지난 1일 전남도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둘러본 영산강 일대에서 오리떼가 날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 강과 동식물

목포시 옥암동 영산강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배를 빌려타고 나불도, 영산호를 거쳐 길게 S자를 그리며 휴드는 무안군 봉탄면 느려지와 봉탄·사포나루를 지나 죽산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먹이를 찾아 앙개가 걷히지 않는 강을 따라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철새들도 적지 않았다.

전도영(57) 목포황포돛배 사장은 "이맘때는 개체수가 적은 편"이라며 "12월이 넘어 가게 되면 영산호 일대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로 강을 뒤덮는다"고 말했다. 동행한 전남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도 "영산강 주변 식영정·석관정·금관정 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이 이뤄지면 영산강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찾는 지역민들이 많아지지 않겠나"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영산강, 생물 다양성 급격한 변화 없다" = "대규모 준설이 이뤄져 강바닥을 깊게 파내며 수천년간 지속된 하천 생태계가 총체적 손상을 받을 것이다", "수생식물의 서식처가 인위적으로 복원되면서 하천 생태계의 종(種) 다양성이 빙ゴ해질 것이다"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 전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된 지금껏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찬·반' 공방'의 핵심 이슈다. 생물들의 생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반대 진영이

서는 갑작스런 사업 추진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침예하게 맞서왔다.

남산 절반 수준(2454만 2000㎡)의 '준설(浚渫)' 사업이 마무리되고 2개의 보(洑)가 완공되는 등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강 주변 생태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 주변 환경 조사 과정에서 시기와 방법, 장소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기 힘들고, 단시간에 걸쳐 변화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생태계 변화나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놓은 현재 까지 영산강 살리기 사업(8개 구간) 중 5개 구간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맡은 용역 업체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 제기 됐던 극심한 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나고 있다.

이 업체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착공 이후 지난 9월까지 2~6공구 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1과 546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 진행된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는 93과 466종 생물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종(種) 다양성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법하다.

조류와 양서·과충류의 경우 종 다양성이

2~6공구 546종 동식물 확인… 급격한 변화 없어

전문가 "현재 결과 안심 못해… 지속적 관찰 필요"

증가했고 수달·삵, 황조롱이 등 법적 보호종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산강 '시원지'(始原地)도 700여종 생물 서식=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이 아닌, 담양군 가마골도 694개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담양군 생물다양성센터에 따르면 센터와 생태도시 담양 21협의회가 지난 5개월간 가마골 생태공원 일대에서 조사한 결과 694개의 생물종이 서식했다.

식물은 환삼덩굴·쑥부쟁이·애기똥풀·국수나무 등 266종이었으며, 곤충은 줄점팔랑나비·높은산세줄나비·콩중이·먹그늘나비 등 365종이었다.

또한 버들치, 갈겨니 등 어류 10종을 비롯해 ▲멧새, 알락할미새 등 조류 32종 ▲쇠살모사, 무당개구리 등 양서·과충류 8종 ▲고리나리, 수달, 노루 등 포유류 13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부 고산지역에서 서식하며 문현상 전남·북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던 '높은 산세줄나비'와 우거진 숲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돌연변이를 일으킨 '주름

이뤄진 4차례의 분포 상황 조사 내내 흔적이 확인됐다.

◇ 영산강 '시원지'(始原地)도 700여종 생물 서식=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이 아닌, 담양군 가마골도 694개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담양군 생물다양성센터에 따르면 센터와 생태도시 담양 21협의회가 지난 5개월간 가마골 생태공원 일대에서 조사한 결과 694개의 생물종이 서식했다.

식물은 환삼덩굴·쑥부쟁이·애기똥풀·국수나무 등 266종이었으며, 곤충은 줄점팔랑나비·높은산세줄나비·콩중이·먹그늘나비 등 365종이었다.

또한 버들치, 갈겨니 등 어류 10종을 비롯해 ▲멧새, 알락할미새 등 조류 32종 ▲쇠살모사, 무당개구리 등 양서·과충류 8종 ▲고리나리, 수달, 노루 등 포유류 13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부 고산지역에서 서식하며 문현상 전남·북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던 '높은 산세줄나비'와 우거진 숲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돌연변이를 일으킨 '주름

■ 영산강 살리기사업(2~6공구) 주변 동·식물 서식현황

공구	출현종수	
	사업전 (2009년)	사업시 (작품~11.9월)
2~6	93과 466종	111과 546종

■ 무인매리(6공구) 출현 결과

출현생물	출현일자	
	수달, 삵, 애기리, 까치, 벳비둘기, 꼼은영기(해오리기), 깍작도	요. 긴발톱할미새
	2011.8.28~9.15	



조개풀'이 발견되기도 했다.

◇ 영산강 환경·생태계 보전·개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현재 나타난 결과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조사 시간, 계절, 장소, 횟수 등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만큼 종과 개체 수가 늘었다고 설불리 결론 짓는 게 아닌,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사업 전 하천 준설과 보 건설

등으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한반도 고유종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변종 출현 등을 고려해 남은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영산강 죽산·승촌보와 하구둑에 조성한 어도도 수중생물의 자연스런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ROSDAO 코스닥상장법인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정4성급이상]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11/1~12/14출발(출발요일: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28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309,000원

JAU+ 무안출발 북경 메리어트호텔사용,리무진버스,금연왕조 전신يات자지,기사기아디프포함/ 쇼핑2회

JAU+ 북경,만리장성4일 589,000원~

JAU+ 북경,만리장성,명13릉5일 66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11/1~12/28출발(수,토)12/28~2/28(월,수,목,토)]

준5성품격 상해,항주,황산4일 499,000원~

준5성품격 상해,항주,삼청산5일 549,000원~

예/약/상/담 350-6226

광 천 점 267-8587

복 구 점 652-2974

상 무 점 574-1300

수 완 점 227-8255

조선대점 382-5353

진 월 점 233-2627

철 단 점 222-9796

총 장 점 954-9700

JAU+ 자유플러스
기쁨있는 당신을 위한 여행

동남아

NO.1 여행지* 방콕/파타야5일	759,000원~
스파&웰빙* 푸 캇5/6일	629,000원~
신 들의 섬* 말 리5일	1,099,000원~
동금 최강* 세 부4/5일	649,000원~
럭셔리 양코포워* 베트남/캄보디아6일	699,000원~

중 국

VIP리무진-천년고도* 북경/만리장성 4일	599,000원~
VIP리무진-동방의진주* 상해/항주/소주4일	599,000원~
무릉도원 * 장가계/원가계/천문산 4/5일	949,000원~
천하명산* 황산/서해대협곡/취운천 4/5일	699,000원~
노립/노유선/유기포함 계림+4대 공연5일	999,000원~

일 본

가을단풍여행 NO.1* 북해도일주4일	849,000원~
도루코 단풍열차* 오사카/나리/교토3일	699,000원~
동양의 하와이-4인출발* 오카나와3일/4일	849,000원~
* 따뜻한 온천의 나라* 규슈일주4일	699,000원~

유 럽

유럽 핵심3국* 서유럽3국(프,스,이)9일	3,490,000원~
유럽 핵심4국* 서유럽4국(영,프,스,이)10일	3,490,000원~
비엔나 왈츠체험 * 동유럽5국9일	2,690,000원~
형제의 나라* 터키원전일주9일	2,490,000원~

JAU+ 고품격여행이란?
자유투어가 흡을 담아 새롭게 만든 고품격상품으로 일관 구성과 합리적인가격으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함!!

무안공항출발전세기 '골프상품도 있습니다.'

마카오,홍콩,주해 4일,5일 NX항공 (12/26~1/23 매주화,금요일출발) **799,000원~**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ZA항공 (12/24~2/28 매주화,토요일출발) **749,000원~**

베트남,캄보디아 6일 VN항공 (12/28,1/2,7,12,17,22출발) **1,240,000원~**

세부 4,5일 Z2항공 (12/29~1/22매주토,일요일출발) **899,000원~**

오사카,나라,교토,고베 3일 (1월22일 단하루!!! 출발) **1,150,000원~**

인천공항 출발

동남아

방콕/파타야5일	399,000원~
세 부 4/5일	529,000원~
푸 캇 5/6일	429,000원~
베트남/캄보디아6일	499,000원~

중 국

북경 4일	199,000원~
계림 5일	599,000원~
장가계 5일	549,000원~
서안 4일	519,000원~

유 럽

서유럽5국 10일	1,790,000원~
서유럽4국 9일	1,490,000원~
그리스+터키 9일	1,390,000원~
터키완전주 9일	990,000원~

남태평양

시드니완전주6일	1,190,000원~
호주/뉴질랜드8일	1,690,000원~

일 본

북해도 4일	629,000원~
오사카 4일	419,000원~
규슈 3일	299,000원~
오키나와 4일	699,000원~